

항공사 객실 여승무원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연구 -동남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 객실 여승무원 중심으로-

장여진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여가관광마케팅·리조트개발전공 박사과정

A Study on the Hair Style of Airline Female Cabin Crew : Focused on Southeast Asia's Largest Low-Cost Airline Female Cabin Crew

Ryeo Jin Jang

Student, Dept. of Leisure Tourism Marketing and Resort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Tourism &
Hospitality, Kyongg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인 A 항공사에서 비행 근무 중인 객실승무원의 헤어스타일 유형을 분류하였다. 객실 승무원들은 일정한 출퇴근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행스케줄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다양화로 헤어스타일도 변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 객실승무원의 경우 출근하기 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쪽머리나 업스타일과 같은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러나 머리를 다듬는 시간이 적을 때는 원랜스 커트와 그레주에이션과 같은 일상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거나 포니테일과 같은 묶은 머리를 선호한다. 객실승무원들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지만 모발의 색조는 자연 갈색이나 약간 밝은 염색을 선호하고 과도한 탈색에 의한 밝은 명도 모발은 선호하지 않는다.

주제어 : 객실 승무원, 승무원 이미지, 헤어스타일, 항공기, 저비용항공사

Abstract This study classified the hairstyle types of flight attendants in flight on A airline, the largest low-cost carrier in Asia. The cabin crew does not maintain a constant commute time, but the hairstyle will chang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commute time according to flight schedules. Therefore, in the case of a female cabin attendant, if there is a lot of time before going to work, a hairstyle such as a up hair style may be maintained. However, when you have less time to trim your hair, keep your daily hairstyle, such as one-length cuts and gradation cut, or keep your hair ponytail-like. The cabin crew maintains a variety of hairstyles, but the color of the hair prefers natural brown or slightly lighter dyeing, and the lighter hair due to excessive bleach is not preferred.

Key Words : Cabin crew, Crew image, Hair style, Airline, LCC.

1. 서론

항공사 객실 승무원은 많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매우 강하고 독립적 존재감을 갖는다. 승무원들은 소속 항공사 고유 색상의 유니폼 착용과 강렬한 색상의 립스

틱 사용 및 밝은 이미지 연출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런 외적 이미지는 탑승객과 상호 교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객실승무원의 외적 이미지와 미소는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감성적인 업무 수행

*Corresponding Author : Ryeo Jin Jang (flyjin2@daum.net)

Received July 7, 2020

Accepted August 20, 2020

Revised July 31, 2020

Published August 28, 2020

의 일부분으로 항공기 여행에서 예상되는 부분이다[1].

최근에 항공사들은 승무원들의 매력적인 표정 연출에서 벗어나 더 캐주얼한 복장과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항공사 승무원들의 이미지는 세련되고 우아한 트렌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회사 차원의 고유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2].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hair style), 메이크업(make-up), 양말 및 몸무게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시행해 왔다[3]. 하와이안 항공(Hawaiian Airlines)에서는 모든 승무원에게 상투를 튼 모양의 탑 노트(top knots) 헤어스타일과 머리카락을 여러 가닥으로 땀아 늘어뜨린 폰 머리(dreadlocks) 헤어스타일 및 전통 아프리카 헤어스타일인 땀은 머리(cornrows) 모양의 헤어스타일을 금지하여 왔으며 유나이티드 에어 라인(United Airlines)은 남성이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왔다[3].

그동안 항공사 객실승무원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자기표현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기내에서 일정 인원이 팀을 이루어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항공사 객실승무원이 개인적인 업무보다 승무 업무 조건에 맞는 회사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내에서 안전상의 이유와 많은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우수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고유의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 왔다.

항공사의 고유 브랜드는 핵심 정체성을 나타내지만 최근 각 항공사마다 복장 규정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고 있으며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만큼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이다. 버진 애틀란틱(Virgin Atlantic)과 에어 링구스(Air Lingus) 항공사는 2019년 3월부터 객실승무원들이 더 이상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발표와 함께 시행을 하고 있으며, 콰타스(Qantas) 항공에서 남성 승무원들에게 깔끔한 콧수염은 허용되고 있지만 턱수염은 산소마스크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면도한 얼굴을 권장하고 있다[3].

승객이 객실 승무원에게 기대하는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풀 서비스 항공사(full service carrier: FSC)를 이용하는 승객은 객실 승무원의 이미지가 매력적일 것으로 기대하였고 상호 작용하는 미적 인지요인으로

승무원의 감미로운 음성(nice tone)과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FSC 객실 승무원은 승객에게 정서적, 심미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저비용항공사(low cost carrier: LCC)를 이용하는 승객은 객실 승무원이 좋은 기내 분위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기내 승무원은 외향적인 개성과 미적인 인식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4]. 이와 같이 FSC와 LCC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모두 객실 승무원의 이성적인 미적 인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실승무원의 미적 기능이 항공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고 장거리 여행으로 인한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오늘날의 항공 여행 산업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독특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기내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여 왔다[4,5].

항공사들은 치열한 경쟁과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을 포함한 외적 이미지 연출을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승무원들은 개인의 취향이나 근무 여건에 맞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헤어스타일의 자유화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승무원들에게 외향적 이미지의 연출과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각 항공사별로 고유 지정 헤어스타일이 회사의 일체감과 조직 유대감을 주어 왔으나 항공 산업의 다변화와 함께 항공사의 고유 이미지를 고객에 대한 예의와 현대 차원에서 승무원들의 자유스러운 이미지 연출과 개인 취향에 맞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6-8].

헤어스타일은 얼굴의 특징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인간의 헤어스타일 변화는 인간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강조하려는 타고난 욕구로서[9], 헤어스타일의 미묘한 변화조차도 직무 만족감과 리더십 능력을 발휘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10].

본 연구는 해외 LCC 항공사에 근무하는 다국적 객실 여승무원의 헤어스타일 종류와 이들 헤어스타일의 선호 현상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 중장거리 노선의 최대 LCC 항공사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A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 유형을 객실 근무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들 실증적인 이미지 자료를 현재 유행하고 있는 헤어스타일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은 여성승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얼굴 측두부와 후두부를 포함한 상반신을 각각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여성 헤어스타일 유형은 원랜스 컷(one length cut), 프렌치 업스타일(up style french hair), 그래쥬에이션 컷(graduation cut), 인크리스 레이어 컷(increase layer and layer cut), 포니테일(ponytail) 및 쪽 머리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항공사는 말레이시아 국적 항공사로 2002년 6월에 설립된 아시아 최대의 LCC 항공사로서 설립한지 2년만인 2004년에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 시장의 30 % 이상을 점유하였고,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태국,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FSC 항공사보다 평균 요금이 약 40-60 % 낮게 운영되고 있다[11].

A 항공사에는 말레이시아, 한국, 호주, 캐나다,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이란 등의 다국적 승무원들이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베이스로 하여 근무하고 있다.

A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은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빨간색 유니폼으로 하절기에 치마를 착용하고 동절기에는 빨간색 롱 코트를 착용하여 붉은색 계열의 회사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A 항공사에는 인종과 국적 및 종교가 다양한 다국적 객실승무원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복장 규정 이외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등의 이미지 연출은 개인의 취향에 어울리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에 대한 고유 지정 헤어스타일은 조직의 일체감을 보여주고 항공사 승무원의 이미지를 각인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최근 항공산업의 다변화로 승무원의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메이크업과 취향에 맞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일부는 친숙한 얼굴과 친숙하지 않은 얼굴들을 보게 되면서 사람을 인식하

게 된다. 코와 눈 및 입과 같은 부위의 얼굴 특징들은 변하지 않지만 헤어스타일은 쉽게 규칙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얼굴의 특징 중에 하나이다[12].

일반인들은 익숙한 얼굴에 변화된 헤어스타일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낯선 사람의 헤어스타일 변화는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Bartel et al.[12]의 보고에 의하면 헤어스타일이 낯선 얼굴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인종과 성별의 구분과 함께 깊은 인상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 A항공사에서 한 팀을 이루어 근무하는 다국적 승무원들의 헤어스타일을 분류하였다. Fig. 1은 원랜스 컷를 한 헤어스타일로 컷를 할 때 자르고자 하는 부위에 층이 없이 수평상태에서 잘라주는 일자 형태의 컷로서 어깨 아래까지 길게 해서 잘라주거나 목덜미가 약간 덮인 상태에서 컷를 하여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주고 있다.

원랜스 컷는 단차를 주지 않고 같은 둘레 길이로 잘라 가지런한 스트레이트 컷의 머리형으로서 여성 객실 승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가운데 하나이다. 원랜스 컷는 두피 정단부에 있는 모발이 아래의 자르고자하는 단면까지 길게 내려뜨려서 수평상태를 유지하는 헤어스타일이다.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원랜스 컷는 어깨 아래 가슴부위까지 길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이나 모발의 말단 부위에 컬(curl)을 하여 볼륨감을 주거나 목덜미를 살짝 감싼 형태의 헤어스타일로 승무원들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원랜스 컷 헤어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승무원들이 출근 전에 소요되는 머리 손질 시간을 프렌치업스타일이나 그래쥬에이션 컷 스타일보다 단축할 수 있다.

그래쥬에이션 컷는 머리의 아래쪽 모발이 가장 짧고 두부의 정단부로 올라가면서 점점 길어지며 비교적 적은 단차를 주는 컷 방법이다. 그래쥬에이션 컷는 다양한 단차를 이용하여 납작하거나 함몰되어 보이는 두상에 입체감을 부여할 수 있다. 컷를 한 두상에서 입체감이 살아있는 부위와 정도에 따라 두상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작한 후두부를 가지고 있는 동양인에게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다[13].



Fig. 1. Photographs of one-length cut hair style of female cabin attendants on board an aircraft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레쥬에이션 헤어스타일은 주로 동양인계 인종의 승무원들이 즐겨 표현하는 헤어스타일이다.

Fig. 2에서 그레쥬에이션 커트의 형태라인은 전두부 부위에서 사선으로 후두부에서는 층이 많이 나게 해서 부드럽게 흘러내림과 입체감을 만들고 얼굴 쪽으로 층이 줄어들어 앞 방향 흐름이 만들어지는 전방향 그레쥬에이션 헤어스타일을 나타내고 있다.

Fig. 2의 우측에서 후두부의 형태 라인은 부드럽고 완만하게 가늘어지는 질감을 표현하여 자연스럽고 활동성 있는 그레쥬에이션 스타일을 보여 주고 있다. Fig 2의 좌측은 생머리로 단정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측은 염색과 굵은 웨이브 펴를 하여 자유롭고 섹시한 여성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레쥬에이션 헤어스타일에서 머리 끝부분의 라인을 깔끔하게 연출하면 단정한 이미지를 주며, 형태라인을 불규칙하고 가벼운 질감으로 만들면 지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밝은 색조의 헤어스타일은 가장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할 수 있지만 갈색 색조의 헤어스타일은 금색과 같은 아주 밝은 헤어스타일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머리카락 길이는 호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는다[14].

본 연구에서도 승무원들의 모발 색조는 자연갈색이나 약간 밝은 명도의 염색모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과도한 탈색을 통한 밝은 명도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는

승무원들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



Fig. 2. Photographs of graduation cut hair style of female cabin attendants on board an aircraft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크리스 레이어 커트는 원랜스 커트와 달리 목덜미를 덮고 있는 모발을 둥근 라인으로 하여 그 부분을 층이 나게 하는 헤어스타일이다. 이와 같은 롱 헤어스타일은 개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깨끗하고 단정한 얼굴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층이 많이 나지 않는 헤어스타일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활동적이고 개성이 강한 이미지를 선호하는 사람은 층이 많이 나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Fig. 3. Photographs of increase layer cut hair style of female cabin attendants on board an aircraft

Fig. 4는 업스타일로 목덜미의 머리카락 끝 부분이 보이게 머리카락을 높게 빗어 올려 윗부분에서 고정하는 헤어스타일의 총칭으로 프렌치 업(french hair up) 스타일로 일명 “소라머리” 형태를 하고 있다. 업스타일은 볼륨감을 없애고 산뜻하게 묶은 시농 스타일(Chignon style)이나 전체로 볼륨함을 갖게 한 풍파두르 스타일(Pompadour style) 등도 포함된다.

시농 스타일은 결혼식장이나 공개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들이 즐겨하는 헤어스타일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즐겨하는 스타일이다. 풍파두르 스타일은 앞머리에 볼륨감을 주어 업스타일로 다양한 형태의 스

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복고스타일의 소라머리는 뒷머리 볼륨이 굉장히 중요하며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탄탄한 고정과 매끄러운 뒷모습을 위하여 예쁜 빗질은 필수적이다. 업스타일은 동남아 국적의 항공사 승무원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중의 하나이다.



Fig. 4. Photographs of up hair style of female cabin attendants on board an aircraft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은 머리에 있는 머리카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얼굴에서부터 후두부 쪽으로 잡아 당겨 머리 끈이나 집게 또는 기타 유사한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머리 뒤로 묶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다.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은 비교적 체적이 큰 서양계 승무원들이 표현하는 헤어스타일로 완랭스 헤어스타일이나 인크리스 레이어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 승무원이 기내 근무 환경에 적응하여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다. Gueguen[16]은 모발을 어깨 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헤어스타일과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포니테일 헤어스타일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하였듯이 객실 여성 승무원들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 중의 하나이다.

헤어스타일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얼굴의 특징이다[8]. 얼굴은 내부 특징(internal feature)과 외부 특징(external feature)으로 구분되어 진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부특징은 주로 눈, 입, 코 및 뺨으로 정의되며 외부 특징은 얼굴의 나머지 부분으로 헤어스타일과 텍션으로 정의된다[6-8].



Fig. 5. Photographs of ponytail hair style of female cabin attendants on board an aircraft

친숙한 얼굴을 인식하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부 특징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처음 보는 얼굴을 인식할 때는 헤어스타일과 같은 외부 특징이 더 중요하다 [7,6,15] 이러한 결과는 친숙한 얼굴을 인식할 때는 외부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이 중요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처음 맞이하는 항공사 승무원의 개성에 맞고 분위기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규정된 유니폼은 항공사의 이미지에 큰 호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항공사 고유 이미지를 연상하는 고정된 유니폼을 착용한 객실 승무원의 다양한 헤어스타일은 오히려 승객들에게 호기심과 안정감을 심어 줄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 최대 LCC 항공사인 A 항공사에서 비행 근무 중인 객실승무원의 헤어스타일 유형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승무원의 헤어스타일 유형에 대한 빈도를 통계학적 처리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객실 승무원들은 일정한 출퇴근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스케줄에 의한 출퇴근 시간의 다양화로 비행스케줄에 따른 헤어스타일도 변화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여성 객실승무원의 경우 출근전 시간의 여유에 따라 올림머리나 소라머리와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기도 하고 출근전 시간이 여유롭지 못할 때는 완랭스 커트와 그레주에이션과 같은 일상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거나 포니테일과 같은 묶은 머리를 유지한다.

객실승무원은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지만 모발의 색조는 자연 갈색이나 약간 밝은 염색을 선호하고 과

도한 탈색에 의한 밝은 명도 모발은 선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헤어스타일의 표현이 자유로운 LCC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헤어스타일은 출근 전 시간적 여유에 따라 헤어스타일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FERENCES

- [1] A. Murphy. (2001). The flight attendant dilemma: an analysis of communication and sense making during in-flight emergencie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29(1), 30-53.
DOI : 10.1080/00909880128100
- [2] J. Earle-Levine. (2012.03). Vain Glorious | Virgin's Code Red. *New York Times*, 27, 1-2.
- [3] R. Ironside. (2019). Airlines' strict uniform codes under review. The Australian Retrieved from <https://search.proquest.com/docview/2239261483?accountid=44466>
- [4] C. H. Yang. (2017). Sky Glamour: Customers' Expected Aesthetic Characteristics Considering Cabin Crew and Passenger Perspectives. *Revista de Cercetare si Interventie Sociala*, 58, 127-145.
- [5] E. N. M. Nameghi & A. A. M. Ariffin. (2013). The measurement scale for airline hospitality: cabin crew's performance perspective.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30(C), 1-9.
DOI: 10.1016/j.jairtraman.2013.03.001
- [6] P. Sinha & T. Poggio. (1996). I think I know that face. *Nature*, 384(5), 404.
DOI : 10.1038/384404a0
- [7] C. Frowd, V. Bruce, A. McIntyre & P. Hancock. (2007). The relative importance of external and internal features of facial composit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8(1), 61-77.
DOI : 10.1371/journal.pone.0034144
- [8] U. Toseeb, D. R. T. Keeble & E. J. Bryant. (2012). The significance of hair for face recognition. *PloS one*, 7(3), e34144.
DOI : 10.1371/journal.pone.0034144
- [9] N Haas, F Toppe, & B. M. Henz. (2005). Hairstyles in the arts of Greek and Roman Antiquity.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Symposium Proceedings*, 10(3), 298-300.
- [10] J. E. Klatt, S. C. Eimler & N. C. Krämer. (2016). Makeup your mind: The impact of styling on perceived competence and warmth of female lead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6(5), 483-497.
- [11] J. F. O'Connell & G. Williams. (2005). Passengers' perceptions of low cost airlines and full service carriers: a case study involving Ryanair, Aer Lingus, Air Asia and Malaysia Airline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11(4), 259-272.
- [12] S. J. Bartel, K. Toews, L. Gronhøvd, & S. L. Prime (2018). "Do I Know You?" Altering hairstyle affects facial recognition. *Visual Cognition*, 26(3), 149-155.
DOI : 10.1080/13506285.2017.1394412
- [13] S. M. Jang & W. J. Jung. (2019). Shape change according to the mixing of forward and rear slope slice lines in graduation haircuts. *Asian Journal of Beauty & Cosmetology*, 17(3), 375-385.
- [14] V. Swami, A. Furnham & K. Joshi. (2008). The influence of skin tone, hair length, and hair colour on ratings of women's physical attractiveness, health and fertility.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49(5), 429-437.
- [15] R. A. Johnston & A. J. Edmonds. (2009). Familiar and unfamiliar face recognition: a review. *Memory*, 17(5), 577-596.
- [16] N. Guéguen. (2015). Women's hairstyle and men's behavior: A field experiment.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56(6), 637-640.
DOI : 10.1111/sjop.12253

장 여 진(Ryeo-Jin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2014년 2월 : 극동대학교 항공운항서비스학과 (관광학사)
- 2012년 10월 ~ 2017년 11월 : 에어아시아 X 항공사 객실승무원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극동대학교 글로벌대학원 항공서비스경영학과 (관광경영학석사)
- 2016년 3월 ~ 현재: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여가관광마케팅리조트개발전공 (관광학 박사과정)
- 2018년 2월 ~ 현재: 제주항공 객실부사무장
- 관심분야 : 항공서비스, 항공관광, 항공안전, 항공경영, 여가관광
- E-Mail : flyjin2@daum.net